



강북구의회
GANGBUK DISTRICT COUNCIL

의정활동보도

2015년 7월 20일
(월요일)

동북일보 4면

“구민들의 생각을 듣고 반영해야...”

구 본 승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

—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지난 1년을 돌아보며.

“조선이였을 때는 본인의 의정활동 중심이었던 반면 위원장으로는 동료의원들 및 위원회를 생각하며 집행부를 견제하는 점에 있어 시야가 넓어져 좋은 경험이었다고 밝히며, 의원들마다의 개성이 있어 중간에서 융합시키고 조율하는 과정이 힘들었다면 힘들었다고 할 수 있고 본인 스스로의 역량 강화가 된 듯 하다.”

— 앞으로 남은 1년 동안 중점을 두고 운영할 부분.

“각 위원들 사이에서 위원장으로서 각등이나 불만족함이 없이 서로 도움을 주고 합심하여 위원회를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며, 구의회의 절반인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의 경우 직접적으로 행정보건위에서 다루지는 않지만 몇 몇



▲구본승 행정보건위원장.

이 한정되어 있는 것이 분명한 강북구이기에 그 속에서 구민들이 원하고 갈망하는 것들을 찾고 구민들을 위해 일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역사문화관광의도시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 초석이 다져진듯하지만 교육에 있어서나 구정 발전에 있어서는 아직 미흡한 점이 너무 많은 것도 사실이라고 생각한다. 타구의 새로운 사업들을 마주하며 바라만 보는 구가 되지 않고 뚫쳐지지 않고 강북구도 발맞춰 나가는 구로 거듭나길 바란다.

특히, 작년 구정질문에서 말한 것처럼 구

가지는 공부를 해가며 구정전반의 이해를 채워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려한다.”

— 구의원 구본승으로서 바라보는 강북구의 현안.

“예산이나 공간들

정 20년을 맞이하여 정책토론회 같은 행사를 주최하여 구민들의 생각을 듣고 반영시킬 수 있는 것은 반영하고 접목시킬 수 있는 것은 접목시키며 행정의 혁신이 필요하다 생각한다.”

한편 행정보건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보건소, 도시관리공단 소관업무에 대한 의안심사, 예산결산심사, 업무보고 청취 및 행정사무감사, 청원 등을 처리하고 있으며, 원활하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현장방문 및 간담회 등을 통하여 문제점 도출 및 보다 생생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예산의 편성 및 집행, 세입 세출에 대한 합리적인 편성 등 우리구 살림은 잘하는지? 보건소 운영을 통한 구민들의 건강은 잘 보살피고 있는지? 주민의 문화 복지 향상을 위한 각종 행사개최가 타당성이 있는지? 구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하고 있다.